

시즌6
제11차

| 국어는 이감 |

이감 국어 모의고사

예비평가 지문 분석

[2021학년도 시즌6 제11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16~21] 과학 융합(주제 통합형)

: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과 진단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생리학 - 자가 면역 질환

- (가) 면역 체계, 항원, 자가 관용성, 자가 면역 질환, 항원 제시 세포, MHC 분자, 항원-MHC 복합체, 보조 T세포, T세포 수용체, 동반 자극, B7 단백질, CD28 단백질, CD28 신호, 사이토카인, 염증, 세포 독성 T세포, B세포, 항체, 자가 면역 T세포, 열성 관용, 조절 T세포, 우성 관용, 자가 항체, 항핵 항체
- (나) 류머티즘, 쇼그렌 증후군, 혈구 침강 속도(ESR) 검사, C-반응성 단백질(CRP) 검사, 자가 항체 농도 검사, 류머티즘 인자(RF), 항-CCP 항체, 시트룰린, 항핵 항체(ANA) 검사, 항-Ro/항-La 항체

* (가) 지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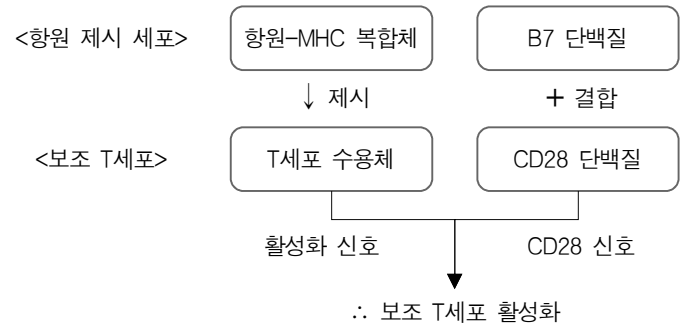
문단1 : 면역 체계의 자가 관용성과 자가 면역 질환

- 1) 인체의 **면역 체계**는 병원균이나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하여 제거하지만, 자신을 구성하는 정상 세포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는 **자가 관용성**을 가진다.
⇒ 면역 체계의 그러한 성질을 ‘자가 관용성’이라고 하나 보다. 아군은 공격하지 않고 봐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겠다. 그런데
- 2) 하지만 자가 관용성이 작동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면역 체계가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다양한 유형의 **‘자가 면역 질환’**이 유발된다.
⇒ 면역 체계가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 부른다. 아군을 공격한다니, 이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비정상적 현상이 맞다. ‘질환’이 아닐 수 없다.

문단2 : 면역 체계의 정상 작동 과정 1

- 1) 면역 체계가 정상 작동하는 경우, 먼저 **항원 제시 세포**가 **항원**을 포획하고
⇒ 적군을 제일 먼저 인지하고 붙잡는 역할을 하는 세포라고 보면 되겠다.
- 2) 그 일부 조각[→ 항원의 일부 조각]을 **자신**[→ 항원 제시 세포]의 세포 표면의 **MHC 분자**[→ ‘항원 제시 세포’에서 항원을 포착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면 되겠다.]와 결합시켜 **항원-MHC 복합체**[→ MHC 분자가 항원을 포획한 상태를 가리키겠다.]를 형성한 뒤
⇒ ‘항원 제시 세포’가 적군을 인지하고 붙잡는 방식이다.
- 3) 이[→ 항원-MHC 복합체]를 **보조 T세포**에 제시한다.
⇒ ‘보조 T세포’는 항원을 직접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원-MHC 복합체’를 통해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는 셈이다.
- 4) 보조 T세포의 표면에 있는 **T세포 수용체**[→ ‘보조 T세포’에서 ‘항원-MHC 복합체’를 포착하는 핵심 부품이겠다.]가 이 복합체[→ 항원-MHC 복합체]를 인식하면 보조 T세포 내부로 활성화 신호가 전달된다.
⇒ 이렇게 해서 ‘항원 제시 세포’에 의해 처음 포착된 항원이 ‘보조 T세포’에게 전달됐다. 그런데
- 5) 다만 또 다른 신호인 **동반 자극**이 함께 전달될 때에만 보조 T세포가 비로소 활성화된다. 항원 제시 세포의 표면에 있는 **B7 단백질**이 보조 T세포의 표면에 있는 **CD28 단백질**과 결합하여 발생하는 신호인 **CD28 신호**가 동반 자극 중의 하나이다.
⇒ ‘항원 제시 세포’가 포획한 항원을 ‘보조 T세포’에게 전달할 때, ‘동반 자극’도 발생해야 비로소 ‘보조 T세포’는 활성화된단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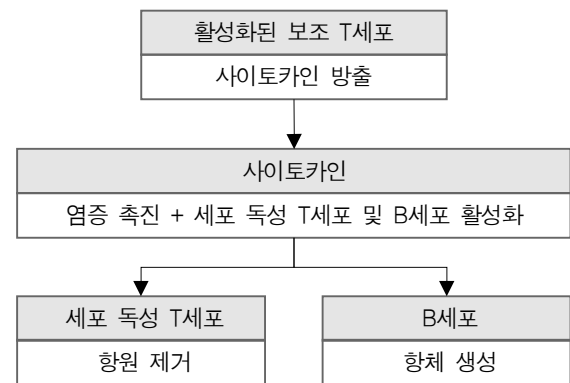
‘동반 자극’은 ‘항원 제시 세포’의 특정 단백질과 ‘보조 T세포’의 특정 단백질이 결합하여 발생한다.



⇒ 따라서 ‘보조 T세포’에 활성화 신호가 전달되는 것과 실제로 ‘보조 T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게다.

문단3 : 면역 체계의 정상 작동 과정 2

- 1) 활성화된 보조 T세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 전달 물질을 방출한다. 항원이 있는 조직에는 **면역 관련 세포들**[→ 아래의 ‘세포 독성 T세포’와 ‘B세포’]을 유인하기 위해 혈관이 확장되고 구멍이 많아지는 등의 면역 반응인 **염증**이 발생하는데, 사이토카인은 염증을 촉진하면서 면역 관련 세포들인 세포 독성 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시킨다.
[백략 생략] 문단2의 연장이다. ‘항원-MHC 복합체’와 ‘동반 자극’에 의해 활성화된 ‘보조 T세포’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 ‘보조 T세포’가 방출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염증’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건 항원이 일으키는 질병이 아니라, 적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인 셈이다. 마냥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닌 게다.
- 2) 그러면 **세포 독성 T세포**는 독성 물질로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 항원]를 제거하고, ...
⇒ 활성화된 ‘세포 독성 T세포’는 직접 적군을 쳐부수고
- 3) **B세포**는 면역 글로불린으로 이루어진 항체를 생성한다. **항체**는 해당 병원균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이를 제거한다.
⇒ 활성화된 ‘B세포’는 ‘항체’라는 군대를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적군을 무찌르는 게다. 항체는 ‘항원 제시 세포’에 의해 식별된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해당 항원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인 셈이다.
⇒ 문단3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겠다.



문단4 : ‘자가 면역 T세포’와 ‘자가 면역 질환’

- 1) 그런데 보조 T세포들 중에는 정상 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자가 면역 T세포**가 존재한다.
[주목] ‘자가 면역 T세포’도 어디까지나 ‘보조 T세포’에 속한다. 문단1의 ‘자가 관용성’에 위배될 뿐이다.
- 2) 자가 면역 T세포의 대부분은 T세포들이 성숙하는 장소인 **가슴샘**에서 제거되지만, 그 일부가 인체 곳곳의 말초 림프 기관으로 이동한다.
⇒ 앞서 등장한 ‘보조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 등 다양한 T세포들은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과정을 거쳐 ‘말초 림프 기관’으로 이동한다.

⇒ 원래대로라면 이 과정에서 ‘자가 면역 T세포’는 제거되어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남는 ‘자가 면역 T세포’가 있다는 얘기가.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은 이 녀석들이겠다.

3) 자가 면역 T세포의 T세포 수용체가 정상 세포 조각-MHC 복합체를 인식하면 활성화 신호가 발생하나, 대개 동반 자극이 나타나지 않아서 자가 면역 T세포는 사멸하거나 무반응 상태에 빠지는 **‘열성 관용’**을 겪는다.

[Rew] 문단2-5)에서 ‘동반 자극’은 ‘보조 T세포’가 실제로 활성화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정상적인 ‘보조 T세포’에 ‘동반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문제지만, ‘자가 면역 T세포’에서 ‘동반 자극’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다행인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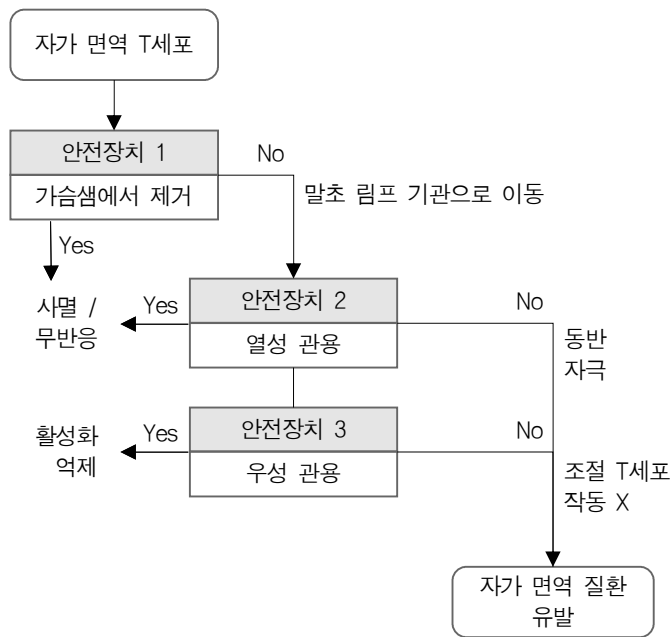
4) 또한 [‘동반 자극’이 나타나더라도] 자가 면역 T세포는 **‘조절 T세포’**에 의해 그 활성이 억제되는 **‘우성 관용’**을 겪으며 사멸하거나 무반응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 설령 ‘동반 자극’이 발생하더라도[→ ‘열성 관용’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성 관용’이라는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다.

[주목] 따라서 ‘자가 면역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 면역 T세포’의 활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총 세 단계의 안전장치가 존재한다. ‘가슴샘에서의 제거’, ‘열성 관용’, ‘우성 관용’이 그것이다. 그런데

5) 이와 달리 **‘조절 T세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동반 자극이 나타나는 예외적인 경우[→ ‘자가 면역 T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실패한 경우]에 **‘자가 면역 질환’**이 유발된다.

⇒ 위의 세 단계가 전부 실패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게다. 정리하면 이렇겠다.



문단5 : 자가 면역 질환

1)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면 자가 면역 T세포에서 방출된 사이토카인에 의해 활성화된 **‘세포 독성 T세포’**가 정상 세포들을 공격한다.

[Rew] 문단3-2)에서 봤듯이, ‘세포 독성 T세포’는 직접 항원을 공격하는 면역 세포였다. 잘못된 신호를 받아 정상 세포를 항원으로 오해한 결과였다.

2) 또한 활성화된 **‘B세포’**는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여러 유형의 **‘자가 항체’**들을 생성한다. 자가 항체 중에는 정상 세포의 소기관이나 핵을 항원으로 감지하는 ‘항핵 항체’도 있다.

⇒ ‘항핵 항체’는 ‘자가 항체’의 한 종류로 이해하면 되겠다.

[Rew] 문단3-3)에서 봤듯이, ‘B세포’는 항체를 형성하여 간접적으로 항원을 공격하는 면역 세포였다. 잘못된 신호를 받아 정상 세포를 공격할 때도 항체[→ ‘자가 항체’]를 생성하게 된다.

* (나) 지문 분석

문단1 : 자가 면역 질환의 진단 기술

1) 자가 면역 질환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증상이 유사한 경우가 많다.

⇒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동일한 종류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다.

2) 예를 들어 면역 체계가 관절이나 운동 기관의 연부 조직(= 뼈나 관절을 둘러싸 있는 연한 부위, 또는 그 조직)을 공격하는 **‘류머티즘’**은 관절통이 주된 증상이고, 면역 체계가 타액선이나 눈물샘 등을 공격하여 분비 장애를 일으키는 **‘쇼그렌 증후군’**은 구강 건조나 안구 건조뿐 아니라 높은 확률로 관절통을 동반한다.

⇒ 그렇다. 단지 관절통이 있다고 해서 같은 질환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3)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의 진단 시에는 증상의 발현뿐 아니라 검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필연적으로 그래야겠다.

문단2 : 혈구 침강 속도(ESR) 검사

1) 자가 면역 질환자의 체내에는 염증이 많이 유발된다.

⇒ 염증 역시 면역 반응의 일환이었다. 비록 ‘자가’ 면역이더라도 어쨌든 면역 반응은 나타난다.

2)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의 진단에 염증의 발생 정도를 파악하는 혈액 검사 결과가 참조된다. 그중[→ 염증의 정도를 파악하는 혈액 검사들 중] **‘혈구 침강 속도(ESR) 검사’**는 혈구가 혈액의 액체 성분인 혈장에서 침강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염증이 많으면 항체 생성에 필요한 면역 글로불린 등의 혈중 농도가 높아져 혈구 침강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을 활용한다.

[Rew] (가)의 문단3-3)에서 B세포가 ‘면역 글로불린’으로 이루어진 항체를 생성한다고 했다.

⇒ 혈액 속에 가루처럼 존재하는 혈구들이 얼마나 빨리 가라앉는지를 측정한다. 농도가 높아질수록 침강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이 특이하다.

3) 시간당 밀리미터를 단위로 하는[→ 엄청 느리다.] ESR의 정상 수치는 여자의 경우 (나이+10)/2 정도이고, 남자의 경우 (나이)/2 정도로, 이보다 높을수록 염증이 비정상적으로 더 많은 상태이다.

⇒ 일반적으로 여자 쪽이 혈구 침강 속도가 빠르거나 보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빠르거나 보다. 아무튼 혈구 침강 속도가 기준 값보다 높으면 염증이 심하다고 본다. 즉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되고 있다.

문단3 : C-반응성 단백질(CRP) 검사

1) 그런데 ESR은 외상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빨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

⇒ 다른 외상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되고 있다면, 면역 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문제가 안 된다. 즉 ESR 검사의 결과만으로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2) 보통 **‘C-반응성 단백질(CRP) 검사’**를 병행한다. CRP는 특정 조직에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된다는 신호를 받아 간에서 생성된다. 그리고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염증으로 인한 조직 손상을 보수하는 데에 사용된다.

⇒ 따라서 ESR 검사는 보통 CRP 검사와 함께 활용되는데, ...

3) CRP의 정상 참고 범위는 0~1mg/dL이다. CRP 수치는 류머티즘에서 높게 나타나는 편이나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몇몇 질환에서는 CRP 합성을 억제하는 또 다른 요인의 작용으로 인해 낮게 나타나는 편이다.

⇒ CRP 수치가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 높다면 ‘류머티즘’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다. ‘류머티즘’을 다른 자가 면역 질환과 구별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검사인 거다.

문단4 : 자가 항체 농도 검사

1) 자가 항체 농도 검사는 B세포에서 생성되는 자가 항체들의 유무를 혈액에서 확인하는 검사이다.

[Rew] (가)의 문단5-2)에서, ‘자가 항체’는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항체라고 했다. ‘자가 항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 의심되는 게다.

2) 자가 항체의 하나인 류머티즘 인자(RF)가 존재하여 양성인 경우에 류머티즘이나 쇼그렌 증후군일 수 있으나, B형 간염일 때에도 양성이 나올 수 있다. 또한 류머티즘 환자의 30% 정도는 RF가 음성이어서 이 검사만으로 확진할 수는 없다.

⇒ 이름은 ‘류머티즘 인자’인데 꼭 류머티즘에서만 나타나는 자가 항체는 아닌가 보다. 심지어 류머티즘 환자라도 RF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단다. 썩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

3) 또 다른 자가 항체인 항-CCP 항체는 염증 생성에 관여하는 아미노산인 시트룰린에 대한 자가 항체로 류머티즘 환자에게서 발견된다.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후 양성을 보이는 RF와 달리, 발병 초기부터 계속 양성을 보이므로 항-CCP 항체 검사는 류머티즘의 초기 진단에 유용하다. 다만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다른 질환에서도 낮은 확률로 항-CCP 항체가 양성일 수 있다.

⇒ ‘항-CCP 항체’는 류머티즘 초기 진단에는 유용하지만 마찬가지로 100% 믿을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

4) 항핵 항체(ANA) 검사 역시 자가 면역 질환의 진단에 필수적이다.

⇒ ANA 검사는 자가 항체의 한 종류인 ‘항핵 항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겠다.

5) ANA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어떤 ‘항핵 항체’가 있음이 확인되면] 쇼그렌 증후군과 관련 있는 자가 항체인[→ 정확히는 ‘항핵 항체’인] 항-Ro/항-La 항체까지 검사하여 이것까지 양성일 때에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한다. 류머티즘은 ANA가 음성인 경우도 많은 편이다.

[주목] 따라서 특정 검사 결과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검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확률적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겠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예술 - 서양 미술 - 종합주의

모리스 드니, 평면성, 명암법, 원근법, 고갱, 베르나르, 현대 회화, 인상주의, 종합주의, 종합주의자들, 클루아조니즘, 「설교 후의 환영」, 야수파, 추상 미술

* 지문 분석

문단1 : 회화의 평면성

1) 회화란 전쟁터의 말이나 춤추는 여인들과 같은 어떤 일화를 담은 것이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색채로 뒤덮인 평평한 표면이라는 **모리스 드니**의 언급은, 19세기 후반 **평면성**을 회화의 새로운 전통으로 삼고자 하는 선언이었다.

⇒ 작가가 아무리 생생하게 전쟁터의 말을 화폭에 담아낸다 하더라도, 그건 2차원 평면에 재현된 3차원 환영에 불과하다. ‘모리스 드니’는 회화가 평면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평면성’을 회화 자체의 특징으로 내세우고자 했다.

2) 당시에는 르네상스 이후 색채의 변화를 활용하는 **명암법**이나 과학적 **원근법**을 통해 외부 대상을 2차원의 화면[→ 평평한 표면]에 3차원의 환영[→ 애초에 2차원에 3차원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으니 ‘환영’일 수밖에 없다.]으로 재현해 왔던 풍토에 회의가 일었는데, ……

⇒ ‘명암법’과 ‘원근법’은 3차원의 외부 대상을 2차원의 화면에 생생하게 담아내려는[→ 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대 봤자 ‘환영’일 수밖에 없는데, 열심히 재현해서 뭐하느냐는 회의가 일었다는 얘기다.

3) …… 그 중심에는 모리스 드니에 앞서 그의 화풍에 영향을 미친 **고갱**과 **베르나르**가 있었다. 그들은 회화의 본질을 평면성에서 찾고자 하였고, 오늘날 평면성은 대다수의 **현대 회화**를 관통하는 특징이 되었다.

[맥락 짚기] ‘모리스 드니’와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도 회화의 평면성에 주목한 화가들이 있었다. 앞으로 이어질 ‘고갱’과 ‘베르나르’의 관점에 주목하자.

문단2 : 인상주의에 대한 비판

1) 회화가 지닌 평면성의 주목은 기계적 재현의 임무를 사진에 넘겨준 탓일 뿐 아니라 ……

⇒ 기존의 ‘재현’에 대한 회의의 원인이기도 하겠다. 작가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회화는 결코 기계에 의한 사진보다 정확하게 재현할 수 없다. 더 이상 회화의 본질을 재현에서 찾을 수 없게 된 게다.

2) …… 당시를 지배하던 **인상주의 화풍**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인상주의**는 마주한 대상에서 드러나는 변화무쌍한 빛의 인상을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그리거나, 대상에 반사된 빛을 세세하게 분해하여 이를 충실히 재현하고자 하는 경향이였다.

⇒ ‘인상주의’는 진정한 재현은 대상에 반사된 빛을 표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다양한 빛에 따라 대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생생하게 재현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모네는 루앙 연작을 통해 상황에 따라 동일한 대상[→ 루앙 대성당]이 어떻게 달리 보이는지를 표현하였다.

[참고] 왼쪽부터 「루앙 대성당-아침 안개」(1893), 「루앙 대성당-정오」(1894), 「루앙 대성당-흐린 날」(1892)이다.



3) **고갱**에 따르면 인상주의자들의 작품은 대상의 표피적이고 세부적인 특징을 보여 줄 수[→ 대상 세부에 충실한 사실적 재현일 수] 있을지 모르나 매 순간 변화하는 순간적인 인상만을 좇을 뿐이어서 대상의 본질을 담을 수는 없었다.

[주목] ‘고갱’에게는 순간순간의 사실적 재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그 대상의 본질을 작품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 가령 고갱은 모네의 연작을 보고 이런 식으로 말했을지도 모른다. “저게 전부 루앙 대성당이라고? 그러면 진짜 루앙 대성당은 어떤 건데? 루앙 대성당의 본질은 뭔데?”

4) 또한 인상주의 작품에는 정신적인 것이나 감정 표현이 결핍되어 있었다. 인상을 담고자 하는 기교의 발달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것의 추구에 머물도록 한 결과이다.

⇒ ‘고갱’과 ‘인상주의’의 차이점을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고갱	인상주의
대상의 본질	순간의 인상
정신적	객관적
감정 표현	사실적

문단3 : 종합주의와 클루아조니즘

1) 고갱은 자연을 직접 보면서 그리는 인상주의의 작업 방식과 달리 ……
⇒ ‘순간의 인상’을 포착해서 사실적으로 재현하려는 ‘인상주의’는 당연히 자연을 직접 보면서 그리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

2) …… 기억이나 상상에 의존하여 그리라고 말하며, 이러한 경향을 **‘종합주의’**라 명명했다. 기억을 통한 감각은 복잡한 형태나 세부적인 면을 사라지게[→ 대상의 표피적이고 세부적인 특징을 생략] 하는 동시에 인식된 사물들의 본질만을 보도록 하므로, 자연히 단순하게 종합된 것이 부각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 ‘고갱’은 직접 보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상상’에 의존해서 그리는 방식을 택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세부는 생략되고[→ 인상주의 입장에서는 사실적 재현을 위한 필수 요소였겠지만 고갱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대상의 본질만이 작가의 내면에서 종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이러한 관점하에 **종합주의자들**은 베르나르에 의해 고안된 ‘클루아조니즘’을 적극 활용했다. **클루아조니즘**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포착하려 했던 색채의 미묘한 변화[→ 순간의 인상]에서 벗어나, 스테인드글라스(= 색유리를 이어 붙이거나 유리에 색을 칠하여 무늬나 그림을 나타낸 장식용 판유리)를 보는 것처럼 표현 대상의 형태를 단순화하고 하나의 원색 색면을 곱고 어두운 윤곽선으로 둘러서 평면성과 장식성이 돋보이도록 하는 기법을 말한다.

⇒ 대상의 색채를 세세하게 재현하려는 대신, 대상을 ‘원색 색면’과 ‘굵고 어두운 윤곽선’으로 단순화함에 따라 3차원의 대상은 2차원 평면 속의 ‘환영’이 아닌 2차원 그 자체가 될 수 있었다[→ 평면성이 부각될 수 있었다.].

[참고] 다음의 그림은 ‘클루아조니즘’을 잘 보여 주는 베르나르의 「두 음악의 천사의 시중을 받는 성모자」(1894)이다.



문단4 : 클루아조니즘의 특징

- 1) 클루아조니즘을 충실히 따른 대표적인 작품으로 고갱의 **「설교 후의 환영」**이 있다.
⇒ 직접 보고 가자.



- 2) 이 작품은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기도하는 모습[→ 작가가 관찰한 현실의 장면]과 함께, ...
⇒ 아마 작가는 브르타뉴 지방의 여성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그리는 대신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나중에 '기억'에 의존해서 그렸을 게다. 또한
- 3) 이들이 상상으로 떠올린,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 기도하는 여성들이 떠올렸을 것이라 작가가 상상한 모습]을 담고 있다.
⇒ 아예 자기가 상상한 장면 역시 포함시켰단다.
- 4) 작품 속 인물들은 도식에 가깝게 단순화되어 있고 형태와 색채에 있어서 왜곡이나 과장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클루아조니즘은 무작정 생략하면서 단순하게 보여 주는 것에 그치는 기법은 아니다.
⇒ 그렇겠다. '대상의 본질'을 작품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화를 택한 거지, 세세하게 그리기 싫어서 단순화를 택한 건 아니었다.
- 5) 이 작품은 브르타뉴 고유의 종교적인 특색에 더해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을 일종의 상징으로 배치하여 작품 전체에 흐르는 관념적인 주제와 내용을 본질로 드러내으로써 깊이를 더했다. 그 단순함으로 인해 주제가 더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이다.
⇒ '관념적인 주제와 내용'을 본질로서 잘 드러낼 수 있었다는 얘기다.
- 6) 또한 고갱과 베르나르는 각각의 색이 주는 심리적 영향인 색채의 상징성이 있음을 간파하였는데, 그래서인지 「설교 후의 환영」을 보고 있으면 단순화된 형태들의 배치와 그에 어우러지는 색채들의 조화가 마치 음악이 흐르듯 화가 내면의 주관적 감정을 전하는 듯하다.
[Rew] 문단2-4)에서 '고갱'이 지적하였듯이 '인상주의'가 다루지 못한 화가의 내면 역시 작품에 담을 수 있었다.

문단5 : 종합주의의 의의

- 1) 고갱과 베르나르의 종합주의는 [작가가] 선택하고 정돈하며 단순화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순수한 회화 요소들이 부각되도록 한다.
⇒ 2차원 평면에 3차원 대상을 억지로 재현하려고 하지 않는 만큼, 자연스럽게 색면, 윤곽선 같은 '순수한 회화 요소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겠다.
- 2) 이는 화가의 주체성에 기반을 둔 형태와 색채의 회복이자 종합이며, 주관과 객관의 종합이기도 했다.
⇒ 작가의 내면에서 종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다.
- 3) 이러한 종합주의의 시도에서 강렬한 원색의 사용은 추후 아수파에, 형태와 색채의 조화나 장식성은 추상 미술에 영향을 미쳤다.
⇒ '종합주의'는 회화의 평면성에 주목하게 했다는 것 외에도 그 이후의 화풍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의의가 있다.

[32~35] 평설 : (가) 「만언사」와 「만언사답」의 창작 의도

* 지문 평가

지문은 「만언사답」이 「만언사」와 연작 관계에 놓인 점을 들어 두 작품 사이의 호응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작가가 엄중한 죄를 지어 추자도에 유배당한 처지에서 임금의 선처를 이끌어 내려는 데 연작의 창작 의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지문 분석

『만언사』 연작[→ ‘한 작가가 지은 여러 작품들이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것들 전부를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할 수도 있는 작품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의 작가는 궁궐의 별감으로서 비리를 저질러 유배되었을 때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한다.[→ 작가 안도환은 정조 임금 때 대전별감으로서 임금의 심부름을 하던 벼슬에 있었는데, 구체적인 죄명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큰 죄를 짓고 유배를 당했다.] 연작은 「만언사」와 그에 딸린 부속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언사」와 연작에 속하는 작품들로는 「만언사답」 외에, 예컨대 「사부모(思父母)」, 「사처(思妻)」 등이 있다.] 특히 부속 작품의 하나인 「만언사답」은 유배지인 추자도의 주민이 「만언사」 화자의 말을 듣고 건네는 대답의 형식을 띠고 있어 「만언사」와의 호응 관계에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작품을 함께 살펴볼 때에 주목할 점은 유배 가사인 이 연작의 창작 의도이다. 작가는 임금의 선처(= 형편에 따라 잘 처리함)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 자신의 죄가 막중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다.] 임금에 대한 감정,[→ 죽을죄를 지었는데 살려 주신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그 고마움을 되풀이하여 노래하거나 ‘임’ 그리워 못 살겠다는 그리움을 토로하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유배지에서 느끼는 고통,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소망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32~35] 고전시가 : (나) 안도환, 「만언사」

* 수록 지문 평가

중인의 유배 가사이면서 귀양살이의 비참한 상황과 절실한 체험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많이 받은 작품이다. 여러 필사본들이 남아 있을 만큼 당대에도 인기가 많았다.

* 수록 지문 분석

나의 죄를 헤아리니 산 같고 바다 같다

⇒ 화자는 자신의 죄가 아주 무겁다는 뜻으로 ‘산 같고 바다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아깝다 내 일이야 애달프다 내 일이야

⇒ 자신의 지난 행동을 안타까움 속에 후회하고 있는 거다.

평생 일심(一心) 원하기를 충효 두루 하자더니

한 번 일을 그릇하고 불충불효 다 되었다

⇒ 평생에 바라던 목표가 ‘충효’였는데, ‘한 번 일’을 잘못해서 ‘불충 불효’가 되었단다. 인생에서는 언제나 결정적인 ‘한 번’이 중요하다.

일 그릇된 뒤에 와서 뉘우친들 무엇 하리

⇒ 일을 잘못 처리한 뒤에 뉘우쳐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다.

등잔불 치는 나비 저 죽을 줄 알았으면

→ 등잔불로 치닫는 나비 저 죽을 줄 알았으면 [불로 달려들겠는가.]

⇒ 자신의 잘못된 지난 행동을 죽을 줄도 모르고 불로 치닫는 나비의 무모함에 빗대고 있다. 죽을 만한 죄를 저질렀다는 고백이다.

어디서 녹 먹는 신하 죄짓자 하라마는

→ 어디서 신하된 이가 죄짓자 하라마는

⇒ 신하된 이로서 일부러 죄를 짓고자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뜻이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 또는 우발적인 것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다.

큰 액(厄)이 닥치려니 눈조차 어둡구나

→ 큰 액운이 들려니 눈까지 어두워졌구나.

⇒ 액운이 끼어 일이 크게 잘못되려고 해서 그런지, 눈마저 어두워져 어리석게도 죄를 지었다는 거다.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액운 탓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른 쇠를 등에 지고 열화(烈火, 맹렬하게 타는 불)에 들어로다

→ 마른 땔나무를 등에 지고 맹렬한 불에 뛰어들이었구나.

⇒ 자신의 지난 행위가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거다.

제가 된들 뉘 탓이리 살 가망 없다마는

→ [내 몸이] 제가 된들 누구를 탓하리, 살 가망이 없다마는

⇒ 지은 죄 때문에 죽게 된다 해도 누굴 탓할 수 없으며, 더욱이 목숨을 건질 가망조차 없는 처지라는 말이다.

목숨 하나 꾸어 주서 해도(海島)에 보내시니

→ [임금께서] 한 목숨을 꾸어 주셔서 바다 가운데 섬에 보내시니

⇒ 죽을 목숨이었는데, 임금께서 목숨을 하나 꾸어 주셔서 죽지 않고 바다 섬에 유배당하게 되었다는 거다. 감사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극하다(= 임금이나 아버지의 은혜가 한이 없다)

⇒ 죽다 살아났으니, 화자로서는 큰 다행인 거다. ‘성은이 망극하다’는 말이 진심이 아닐 리 없겠다.

(중략)

어와 못 잊을사 님을 그려 못 잊을사

→ 어와, 못 잊겠구나, 임을 그려 못 잊겠구나!

⇒ 임을 잊지 못해 괴로울 만큼, 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함을 반복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용문검 태아검에 비수검(匕首劍, 날이 예리하고 짧은 칼) 손에 쥐고

→ 용문검, 태아검에 비수를 손에 쥐고

⇒ 용문검과 태아검은 중국의 이름난 보검의 대명사이다.

청산리(靑山裏) 벽계수(碧溪水, 물빛이 맑아 푸르게 보이는 시냇물)를 힘까지 베어 봐도

→ 청산에 흐르는 벽계수를 [있는] 힘껏 베어 봐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한데 이어 흐르나니

→ [흐르는 물] 끊어지지 않고 한데 이어 흐르나니

⇒ ‘용문검’, ‘태아검’ 같은 이름난 보검으로 흐르는 물을 내리쳐 아무리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다는 말은 물을 끊는 데 이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물 베는 칼도 없고 정(情) 베는 칼도 없네

⇒ 눈에 보이는 물도 벨 수 없는데, 눈에 안 보이는 정(情)을 벨 도리는 더욱 없겠다.

물 끊기도 어려우니 마음 끊기 어이하리

⇒ 칼로 물 베기가 어렵다면, 마음을 베어 끊기는 당연히 더 어렵다.

‘칼로 물 베기’란 속담은 다투었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 곧 사이가 다시 좋아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화자는 자신과 임 사이를 결코 갈라놓을 수 없음을 이 비유로 강조하고 있다.

용문(龍門)의 자취 가벼워지고 옥정(玉井, 옥이 나는 곳에서 흐르는 샘물)의 물 흐려지며

⇒ 사물의 변화가 극심할 만큼 시간이 많이 흐름을 비유한 거다.

상전(桑田, 뽕나무 밭)이 벽해(碧海, 푸른 바다) 되고 벽해가 상전 돼도

⇒ ‘상전벽해’는 세상일의 변화가 매우 심함을 비유한 말인데, 화자는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그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이 결코 변치 않음을 강조하는 거다.

님 그리는 마음이야 변할 길이 있을쏘나
 내 이리 그리운 줄 아오시나 모르시나
 → 내가 이렇게 [임을] 그리워하는 줄 [임은] 아실까 모르실까.
 ⇒ 화자 자신은 임 그리워 죽을 만큼 이렇게나 임을 생각하고 있는데, ‘임은 정작 나를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 잠깐이나마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내 아니 잊었거든 님이 설마 잊었으랴
 → 내 아니 [임을] 잊었는데, 임이 설마 [나를] 잊었으랴.
 ⇒ 잠깐의 의심을 거두고, ‘내가 그런 것처럼, 임도 날 절대 잊지 않을 거야’라고 믿고 싶은 거다.

풍운(風雲)이 흩어져도 모일 때 있었으니
 → 바람과 구름이 흩어져도 [다시] 모일 때가 있으니
 ⇒ 비록 흩어져도 다시 모이는 바람이나 구름처럼, 화자 자신과 임도 그렇게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거다.

된서리(= 늦가을에 이주 호되게 내리는 서리) 차다 한들 비와 이슬 아니 오랴
 ⇒ ‘된서리’가 시련[→ 유배에 처해진 것]이라면, ‘비와 이슬’은 은택[→ 사면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울음 울어 떠난 님을 웃음 웃어 만나고저
 ⇒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가운데, 웃으며 임과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리저리 생각하니 가슴속에 불이 난다
 ⇒ 임을 만나고 싶다는 희망에 부푼 가슴에 갑자기 ‘불’이 나는 것은 왜일까. 괴롭고 힘든 유배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 상황에 대한 비관(悲觀)을 도저히 떨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앞날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다.

간장(肝腸)이 다 타오니 무엇으로 끄잔 말고
 끄기가 어려울손 오장(五臟)의 불이로다
 ⇒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번민이 심해지면 가슴속이 답답하고 괴로워 마치 내장이 온통 불에 타는 것처럼 뜨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막연한 기대 외에 현실의 고통을 벗어날 가망이 보이지 않으니 이런 번민을 끊어 낼 수 없는 거다.

천상수(天上水)를 얻으오면 끝 법도 있건마는
 → 천상수를 얻는다면, [가슴속 불을] 끝 법도 있겠지만
 ⇒ ‘천상수’는 ‘하늘 위의 신비로운 물’로, 화자의 가슴속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화자가 인식하는 사물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니, 사실 문제 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대상인 셈이다.

알고도 못 얻으니 혀가 말라 말이 없네
 ⇒ ‘천상수’가 세상에 실재하는지 알 수 없지만, 설령 실재한다고 해도 얻을 길이 없으니 혀가 바짝 마를 정도로 마음은 더욱 초조해지는 거다.

차라리 쾌(快)히 죽어 이 설움을 잊자 하고
 ⇒ 현실의 고통을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자 결국 화자는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바닷가에 혼자 앉아 종일토록 통곡하며
 망해 투사(茫海投死, 바다에 몸을 던져 죽음) 하려 함도 한 번 두 번 아니오며
 적적 중문(重門) 굳이 닫고 천사만사(千事萬事) 다 버리고
 → 적적한 중문을 굳게 닫고 온갖 일 다 잊어버리고
 불식 아사(不食餓死, 먹지 않고 굶어 죽음) 하려 함도 한 번 두 번 아니오며
 ⇒ 극단적인 생각을 여러 가지로 했다는 거다. 극심한 절망감의 표현이겠다.

일각 삼추(一刻三秋) 더디 가니 이 고생을 어찌할꼬
 → 일각이 삼 년인 듯 더디 가니 이 고생을 어찌 할꼬?

⇒ ‘일각 삼추’는 ‘일각여삼추(一刻如三秋)’인데, ‘일각’, 곧 15분 정도의 시간이 ‘삼추’, 곧 3년의 가을이 지나는 3년과 같이 길게 느껴진다는 거다. 임을 다시 만나길 바라며 기다리는 고통이 극심함을 강조하는 뜻이 있다.

[32~35] 고전시가 : (다) 안도환, 「만언사답」

* 수록 지문 평가

「만언사답」은 「만언사」에 대한 답사로 「만언사답」의 내용과 문제의식이 본사인 「만언사」와 긴밀하게 호응하는 가운데, 답사는 본사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는 셈이다. 유배객인 「만언사」의 화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책하면서도 그것이 의도치 않은 것이었음을 밝히며 죽을 목숨을 살려 준 임금의 은혜에 감격하고 임 그리느라 괴로워 죽을 것만 같은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유배지 주민인 「만언사답」의 화자는 유배객인 「만언사」의 화자를 ‘손님네’로 호칭하며 그를 위로하고 그의 잘못을 두둔하는 가운데, 힘들어 죽고 싶어도 견디며 살아야 함을 당부하고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있다. 「만언사」의 화자나 「만언사답」의 ‘손님네’는 사실상 작가 자신이라 할 수 있겠다.

* 수록 지문 분석

천사만사(= 온갖 일) 헤아리고 사생지간(死生之間) 가리어서
 → 온갖 일 헤아리고 삶과 죽음을 가려서
 ⇒ 화자는 청자인 ‘손님네’, 곧 「만언사」의 화자에게 죽음을 쉽게 떠올리기 전에 이런저런 일들을 잘 생각해 보고 삶과 죽음을 잘 분별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죽음을 쉽게 보지 말라는 뜻인 거다.

죽은 후에 편타 말고 살아 고생 한때 하소
 → 죽고 나서 편하다 [하지] 말고 살아서 한때 고생하소.
 ⇒ 힘들어도 그 고생은 한때에 그칠 것이니 살아서 고생을 감당하라는 거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거다.

오복(五福) 으뜸 수명(壽命)임을 손님네는 모르시나
 → 오복 중 수명이 으뜸임을 손님네는 모르시나?
 ⇒ ‘오복’은 유교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복인데, 흔히 ‘수명’과 ‘부유함’, ‘강녕(康寧,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함)’, ‘유호덕(攸好德, 덕을 좋아하여 즐겨 행함)’, ‘고종명(考終命,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음)’을 꼽는다. 화자는 이 오복 가운데에서도 ‘수명’, 곧 ‘오래 삶’이 맨 앞에 나올 만큼 가장 큰 복이니, 죽지 말고 살아야 함을 설득하고 있는 거다.

그릇한 일 뉘우쳐서 애달다 너무 마소
 → 그릇한 일 뉘우친다고 너무 애달파 하지는 마소.
 ⇒ 「만언사」의 화자인 ‘손님네’가 그동안 많이 뉘우쳐 왔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인개성인(人皆聖人) 아니어든[→ 모든 사람이 다 성인(聖人)인 것은 아니니] 진선진미(盡善盡美,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고 아름다움, 곧 완전 무결함) 쉬울쏜가
 ⇒ 모든 사람이 다 성인일 수 없으니 ‘진선진미’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사람인 이상 실수할 수 있으니 ‘손님네’의 잘못도 결국 한때의 실수일 뿐이라며 그를 두둔하는 거다.

지난 일 못 돌이키니 앞일을 취하리로다
 ⇒ 지난 일은 다시 어찌할 수 없으니 앞일이나 제대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내 인사(人事)를 닦은 후에 하늘 명을 기다리소
 →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뒤에 하늘 명을 기다리소.

천고청비(天高聽卑, 하늘은 높아도 능히 낮은 곳의 일을 모두 알아들음)

하오시니 손님 곤역(困厄, 몹시 딱하고 어려운 사정과 재앙이 겹친 불운) 오래 할까

⇒ ‘손님네’의 사정을 하늘이 아시니 머지않아 어려움이 끝날 것이라는 위로의 말이겠다.

대 끝에도 삼 년[→ 대나무 끝에 매달려서도 삼 년을 견딘다는 말]이니 잠깐 조금 기다리오

⇒ ‘대 끝에 삼 년’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나 처지에서도 오래 꼭 참고 견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화자는 이 속담을 들어 좀 더 참고 기다려 보라고 ‘손님네’를 권면하고 있다.

어와 손님네야 다시 내 말 들어 보소

그도 저도 다 버리고 망극 천은(天恩) 잊으실까

→ 그도 저도 다 버리고 망극한 임금 은혜를 잊으실까?

⇒ ‘천은’은 하늘 또는 임금의 은혜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임금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자는 앞에서 ‘손님네’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의 말을 했는데, ‘그도 저도’는 그러한 권면의 말들을 가리킨다. 즉, 자신의 이런저런 권면의 말들은 설령 다 무시한다 해도 ‘천은’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거다.

살진 고기 낚아다가 개소(開素, 오랜만에 고기반찬을 먹어 봄)함도 천은이요

나무 베어 불 때어서 따뜻이 잠도 천은이요

북창 청풍(淸風) 누웠을 제 한가함도 천은이요

→ 청풍이 부는 북쪽 창가에 누워 한가롭게 지냄도 천은이요

만경창과(= 만 이랑의 푸른 물결이라는 뜻으로,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를 이르는 말) 바라볼 제 장관(壯觀, 훌륭하고 장대한 광경) 봄도 천은이요

→ 만경창과의 장관을 바라봄도 천은이요

나아가도 천은이요 물러가도 천은이라

⇒ 위 다섯 구에 걸쳐 ‘천은’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결국 ‘손님네’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것이 임금의 은혜 덕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배지 주민을 화자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이런 생각을 작품에 써 넣은 것은 작가 자신이니, 이 말도 결국 작가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손님 몸 죽으시면 큰 죄가 둘이로세

⇒ ‘손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두 가지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면서 죽어선 안 될 또 다른 이유를 대고 있다.

부모를 잊으시니 불효도 되려니와

→ 부모를 잊었으니 불효도 되겠지만

⇒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아(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곧 ‘몸의 머리털과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니, 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란 공자의 말은 유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자기 몸을 해치거나 죽이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불효이다.

천은을 또 잊으니 불충이 아니런가

→ 천은을 또 잊었으니 불충이 아니겠는가?

⇒ ‘손님’의 모든 것이 임금께 받은 은혜 덕분이니 그 목숨을 해치는 것은 그 은혜를 잊는 것이며 불충인 거다.

이감

[39~42] 사회 : 신흥국 금융 시장과 토빈세 도입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경제학 - 투기성 자본, 토빈세

신흥국, 투기성 자본, 환율, 채권, 시장 금리, 환차익, 토빈세, 외환 거래세, 스펀세

* 지문 분석

문단1 : 투기성 자본으로 인한 신흥국의 경제 위기

1) 2008년 금융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이었으나 그 여파가 세계로 전파되며 일부 신흥국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

⇒ 그렇다. 왜 신흥국들이 더 피해를 입었을까?

2) 금융 불안과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를 이유로 투기성 자본이 신흥국에서 일거에 빠져나가면서[→ 대거 이탈하면서] 신흥국의 금융 시장 붕괴와 경제 위기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백략 짚기] ‘투기성 자본’이 무엇인지, 이들이 ‘대거 이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주목해야겠다.

3) 투기성 자본의 대거 이탈은 해당 신흥국의 금융 자산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 신흥국의 금융 시장 붕괴]은 물론, ……

⇒ 쉽게 말해서 투기성 자본이 해당 신흥국의 금융 자산을 죄다 팔아 치우고 떠나기 때문에[→ 이는 금융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금융 시장을 망가트린다는 얘기다.

4) …… 외환 시장에서 [해당 신흥국의 화폐를] 달러화로 바꿔 유출되는 것이므로 신흥국 화폐의 달러화 대비 환율 급등을 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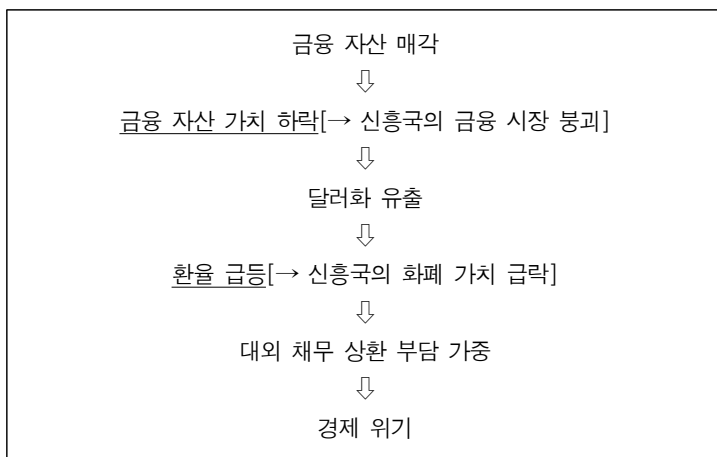
⇒ 투기성 자본의 목적은 해당 신흥국의 시장에서 벗어나는 데에 있는 만큼 금융 자산을 팔아 치워서[→ 금융 시장] 얻은 해당 신흥국의 화폐를 달러화로 바꾸게 된다[→ 외환 시장].

5) 이는 신흥국의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것이어서 대외 채무 상환 부담의 가중[→ 국내가 아닌 국외에 진 빚의 상환이 더욱 어려워짐]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

⇒ 환율 급등은 곧 달러화 대비 신흥국의 화폐 가치[→ 원화의 가치로 가정해 보자.]가 떨어졌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환율이 상승했다면, 1,000원의 가치는 1달러에서 0.5달러로 하락한 셈이다.

⇒ 달리 말하면 똑같은 1달러를 갚더라도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가만히 있었는데 빚이 늘어난 상황이다.

[주목] ‘투기성 자본’의 대거 이탈로 인한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문단2 : 투기성 자본의 이익 확보 과정

1) 본래 투기성 자본은 저평가되어 있는 신흥국의 자산에 단기 투자하면서[→ 상대적으로 싼 신흥국의 금융 자산을 사서] 작더라도 확실한 이익들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경향[→ 한 번에 1,000원만큼의 이익을

내는 대신, 10원만큼의 이익을 100번 내리는 경향]이 있어서, 신흥국의 자산들을 빈번하게[→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편이다.

⇒ 이들이 어떻게 ‘확실한 이익을 대규모로 확보하는지’에 대해서는 천천히 알아보고, 여기서는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만 확실히 쟁겨 두자.

2) 예를 들어 만기가 동일하고 만기에 수령하는 원리금도 동일한[→ 만기 시의 가치가 동일한] 선진국의 채권과 신흥국의 채권이 있다고 하자.

⇒ 한마디로 ‘선진국의 채권’이나 ‘신흥국의 채권’이나 만기에 수령하는 돈은 똑같다는 얘기다.

3)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 시장 금리가 낮아서 ……

[참조] ‘시장 금리’란 돈을 빌리기 위해 필요한 이자율로, 해당 화폐의 가격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4) …… 채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 채권은 만기에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므로[→ 만기에 수령하는 원리금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므로] 시장 금리가 낮을수록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 ‘시장 금리’가 낮으면 ‘채권의 가치’는 높게 평가된다. 만약에 ‘시장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면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채권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시장 금리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했을 때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시장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채권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 따라서 만기에 수령하는 돈이 똑같음에도 ‘선진국 채권의 가치’가 ‘신흥국 채권의 가치’보다 크다[→ 더 비싸게 거래된다.].

$$\begin{array}{c}
 \text{선진국의 시장 금리} < \text{신흥국의 시장 금리} \\
 \downarrow \\
 \text{채권의 가치} \propto 1/(\text{시장 금리}) \\
 \downarrow \\
 \text{선진국 채권의 가치} > \text{신흥국 채권의 가치}
 \end{array}$$

5) 이런 경우에 투기성 자본은 선진국의 채권을 매도하여[→ 상대적으로 비싼 채권을 팔아서] 확보한 자금으로 신흥국에서 더 많은 양의 채권을 매입한다[→ 상대적으로 싼 채권을 더 많이 사들인다.]. 그러면 만기 도래 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

⇒ 이진 산수다. ‘만기에 수령하는 원리금’[→ 1,000원이라고 해 보자.]이 동일하더라도 똑같은 돈으로 ‘선진국의 채권’보다 ‘신흥국의 채권’을 더 많이 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 채권 90개로 신흥국 채권 100개를 사들일 수 있다고 해 보자.] 만기에 더 많은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다[→ 10개 × 1,000원을 더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다.].

⇒ 1)에서 ‘투기성 자본’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신흥국의 자산[→ 신흥국의 채권]에 단기 투자하는 이유이다. 이런 식으로 확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6) …… 외환 시장에서 이익이 더해지기도[→ 별개의 이익이 더해지기도] 한다.

⇒ 여기에 더해 ‘금융 시장’에서의 채권 간의 차익 거래를 통한 이익과는 별개로 또 다른 이익이 ‘외환 시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7) 신흥국의 화폐가 저평가되어 있었다면[→ 달러화 대비 환율이 높으면] 신흥국의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신흥국 화폐를 대규모로 사들임에 따라 하락한 환율[→ 신흥국 화폐 가치의 상승]로 인해 자금 회수 시에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Rew] 문단1-4)와는 반대의 상황이다. 달러를 팔고 신흥국 화폐를 사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은 떨어진다[→ 투기성 자본 유입의 결과].

⇒ 그 결과 ‘투기성 자본’은 만기에 수령한 원리금[→ 신흥국 화폐]을 외환 시장에서 다시 달러화로 바꿀 때 더 낮은 환율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기성 자본은 원리금 1,000원을 1달러가 아니라 2달러로 바꿀 수 있다.

⇒ 물론 '환차익'은 다른 변수로 인해 환율이 다시 높아졌을 때는 [→ 예를 들어 다시 1달러에 1,000원으로 환율이 높아진다면] 누릴 수 없는 '부가적 수익'일 뿐이다.

문단3 : 신흥국 금융 시장의 교란 요인인 투기성 자본

1) 이러한 이유로 투기성 자본들은 국가 간의 작은 금리 차이[→ 차익 거래를 통한 수익, 문단2-5)]나 환율 변동[→ 환차익을 통한 수익, 문단2-7)]이 예상될 때마다 대규모로 자금을 유출입하곤 하며, 이는 신흥국의 금융 시장에 상시적인 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

⇒ 이렇게 신흥국 금융 시장은 '투기성 자본의 영향'으로부터 항상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실물 경제에 필요한 자금의 유출입을 막지 않아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도

[주목] 중요하다. 모든 자금의 유출입을 막으면 곤란하다는 거다. 오직 투기성 자본만을 막아야 하는 거다.

3) 금융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투기성 자본의 유출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토빈세가 제기되곤 한다.

[맥락 짚기] '토빈세'의 구체적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 문단에서 살펴 봐야겠다.

문단4 : 토빈세

1) 토빈세는 토빈이 제창한 외환 거래세의 다른 이름으로, 자국 외환 시장에서의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거나, 달러화를 원화로 바꿀 때 부과하는 세금이겠다.

2) 토빈은 신흥국에서 외환 거래세가 적정 세율로 시행된다면 그 세율 보다는 낮지만 확실한 수익을 추구하던 단기적인 외국계 투기성 자본의 유입을 막으면서

[주목] '토빈세'의 핵심 원리다. '투기성 자본'은 채권 간의 차익 거래를 통한 '확실한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 확실한 수익률보다 이주 조금 높은 세금[→ 적정 세율]을 외환 거래에 부과한다면 투기성 자본 입장에서 신흥국에 진입할 동기가 사라진다.

3) 장기적인 투자 목적의 자금이나 실물 경제 관련 자금의 유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물 경제에 필요한 자금의 유출입은 막지 않는] 정책 운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낮지만 확실한 수익'에 대한 동기만을 차단하는 만큼 실물 경제 관련 자금의 유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4) [투기성 자본에 의해] 과열된 금융 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외환에 대한 거래 비용을 높여서[→ 투기성 자본의 유입 동기를 차단하여], 즉 '외환 시장의 틈니바퀴에 모래를 뿌려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자 하는 의도이다.

⇒ 외환 거래세를 도입하여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금융 시장의 교란을 모두 방지할 수 있다는 게다.

문단5 : 스핀세와 국제 공조

1) 토빈의 아이디어를 계승한 방안 중 스핀에 의해 주창된 2단계 토빈세 도입 방안인 스핀세도 있다.

[맥락 짚기] 일반적인 '토빈세'와 어떻게 다른지 주목해야겠다.

2) 이는 평상시에는 매우 낮은 세율을 부과하다가[→ 평소에는 외환 거래에 딱히 관여하지 않다가, 1단계] 금융 위기나 투기성 자본의 공격 등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심해질 경우에[→ 투기성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을 때] 차단 장치가 작동되도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 2단계]이다.

⇒ 실물 경제에 필요한 자금의 유출입을 막지 않기 위해서라도 평상시에는 차단 장치를 작동시키지 않다가[→ 1단계], 투기성 자본이 유입

될 상황에는 차단 장치를 작동시킨다는[→ 2단계] 얘기다. 위기 때만 외환 시장의 틈니바퀴에 모래를 왕창 뿌리는 전략이다.

3) 다만 이들 방안이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된다면, 투기성 자본들이 토빈세를 시행하지 않는 다른 국가로 대거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오히려 토빈세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만 금융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

[주목] 토빈세가 의도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도입할 거면 일부 국가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만 도입하면 오히려 해당 국가에서 모든 투기성 자본이 유출되는, 문단1-2)와 같은 경제 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토빈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투기성 자본만을 막으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비슷한 세율의 외환 거래세를 부과하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 세율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매길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A, B, C 세 나라가 전부 토빈세를 도입하더라도 A의 세율이 B, C의 세율 보다 높다면, 이는 A만 토빈세를 도입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 3)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마찬가지로 투기성 자본은 전부 B, C로 이동할 테니 말이다.